

'93年 中小企業育成施策

商工部는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
해 中小企業의 技術개발과 정보화에 대한 金融
및 稅制支援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중 技術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을 내년도에는 올해의
19.5%에서 25%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技術인
력개발비 지출증가분에 대한 稅額控除率을 현
행 10%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構造調整事業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 構造調整基金의 내년도 지원규모를 올해
의 3천1백30억원에서 3천4백30억원, 金融機關
의 構造調整資金支援규모는 5천5백원에서 6천
억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또 中小製造業體들에 대해 法人稅 및 所
得稅의 20~40%를 경감해 주는 임시특별
세금경감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시행, 내년
도에만 5천5백억원상당의 稅金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商工部가 國會에서 제출한 "93년도 中小
企業育成施策"에 따르면 中小企業의 技術력
강화를 위해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期間중

('92~'96) 中小企業의 매출액대비 技術개
발投資比率을 현재의 0.25%에서 1%수준으
로 높인다는 계획아래 이같이 技術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업계의 技術개발을 지원키 위해 각 지
도기관의 現役 및 退役技術者名單을 데이터
베이스화시켜 技術인력을 中小企業들이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技術者 Pool제'를 실시
하고 産業技術研究組合의 결성 확대 및 이업
종간 技術교류를 擴散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輸出擴大도 적극 유도
한다는 방침아래 中小企業貿易金融單價(현
행 달러당6백50원)를 換率을 감안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輸出信用保證制度 실시
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사상표 輸出에 대한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의 損金算入限度를 현행수출액의 2
%에서 3%로 확대하고 오는 96년까지 해
외시장개척기금 5백억원을 조성, 中小企業
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내년까지 2

백억원을 造成할 계획이다.

南北經濟協力事業에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輕工業위주의 中小企業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方案을 摸索하고 南北交易 可能 품목을 적극 發掘할 방침이다.

中小企業振興工團內에 설치된 中小企業國際化事業團의 기능강화도 적극 추진, 해외 마케팅과 해외투자조사·유효설비의 해외이전·외국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등을 지원토록할 계획이다.

수출입절차간소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輸出 檢査對象品目(현행 1백59개)을 계속 축소하고 사전의 無檢査制度를 自律檢査制度로 전환하는 方案을 推進하며 일정금액(1만달러)이하의 輸出시 輸出承認을 免除해줄 계획이다.

업계의 自動化 및 情報化를 촉진키 위한 施策도 강화, 關連자금의 확대공급과 함께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연장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中小企業情報銀行'을 설치하며 産業技術情報院內에 기술정보유통체제(테크노마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構造調定課程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經營安定을 위해 중소기업제조업에 대해 臨時特別稅金輕減制度를 실시하는 동시에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의 자본금을 民間公募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내에 經營安定資金을 설치, 일시적 자금난으로 倒産危機에 처한 有望中小企業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전담은행의 貸出규모도 올해의 10조원에서 11조5천억원, 공제사업기금규모를 올해의 1천5백24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公共機關의 중소기업제품 購買규모를 올해의 13조7천억원에서 15조원, 團體隨意契約額을 2조2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信用保證支援擴大를 위해 내년도에 信用保證基金에 9백억원, 技術信用保證基金에 6백억원등 총1천5백원을 추가로 出捐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信用保證機關에 대한 출연을 誘導할 方針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創業을 촉진키 위해 創業節次簡素化를 지속적으로 推進하고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만이 지정돼 있는 創業企業保育센터를 전국적으로 擴大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工場設立支援團을 구성, 지방공장건설을 代行시키고 지방이전 준비금의 損金算入限度를 현행 10%에서 15%로 늘리며 각종 정책자금의 지방지원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주력, 모기업의 출연에 의한 계열화 促進基金을 설치, 共同協力事業을 促進하고 조립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통해 상호 자금 및 技術·人力등이 협력관계 強化를 誘導할 方針이다.

자료제공 : 상 공 부